



2019년 7월 14일(제937호) 연중 제15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지는 어떻게 해야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은 이웃의 자격이나 조건을 묻는 ‘단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께 선택을 받은 ‘내 민족’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율법학자는 내 민족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만 이웃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 옳게 답해야 하는 ‘입국심사’와 같았습니다. 오답은 곧 방출입니다.

그런 살벌한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대답하십니다. 이웃이란 내가 세운 ‘조건’과 ‘이해타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편에서의 선택에 따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달리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하여 온정을 베풀 때, 상대방의 참된 이웃으로서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단일민족’을 주장하고,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율법학자처럼 “누가

제 이웃입니까?”라며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웃목록에서 지우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형수, 노숙자, 장애인들……. 하지만 나도 이 사회에서 언젠가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 받을 수도 있으며, 몸이 약해져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예수님께서서는 내게 알맞은 이웃을 찾기보다 자비와 자선을 베풀어 먼저 이웃이 되라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때 나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고, 그렇게 이웃이 많은 나는 불안한 세상에서 외롭거나 두려움에 떠는 법 없이 마음 든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윤형식(토마스 이루나스) 신부  
원신(5사단)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신명 30,10-14
- 회 탐 송** ◎ 가난한 이들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 제 2 특 시** 콜로 1,15-20
- 복음 본'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복 음** 루카 10,25-37
- 영 성 제 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유중철 요한



성인명: 유중철 요한 (柳重哲 John)  
신분: 양반, 동정 부부, 순교자  
활동연도: 1779-1801년

‘중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유중철(柳重哲) 요한은, 1779년 전주 초남이(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부유한 양반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1801년에 순교한 유향검 아우구스티노가 그의 부친이고 이순이 루갈다가 그의 아내이며, 유문석 요한은 그의 동생이다.

유 요한은 일찍 세례를 받고,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되었다. 또 그는 한정흠 스타니슬라오에게 오랫동안 글을 배워 어느 정도 학식도 갖추게 되었다. 유 요한은 16세가 되던 1795년,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초남이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첫영성체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동정 생활을 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주 야고보 신부와 부친 앞에서 털어놓았다. 그로부터 2년 뒤 주 야고보 신부는, 한양에 살던 이순이 루갈다에게서 동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주 야고보 신부는 전주에 사는 유 요한을 염두에 두고 둘의 혼인을 주선하였고, 마침내 1797년 가을에 유 요한과 이 루갈다의 혼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801년 봄, 유 요한이 신유박해로 체포되어 전주 옥에 갇히게 되자, 동생 유문석 요한이 줄곧 전주를 오가면서 음식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밤낮으로 목에 칼을 쓰고 있어야만 하였으며, 옥중의 고통은 그에게 진정한 형벌이 되었다. 9월 중순에는 유 요한의 아내 이 루갈다를 비롯하여 동생과 다른 가족들도 체포되었다. 그리고 20여 일 후에 포졸들은 유문석 요한을 가족에게서 떼어 내, 형 유 요한에게 데려왔다. 그런 다음 관장의 명에 따라 그 둘을 교수형에 처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11월 14일(음력 10월 9일)로, 요한의 나이는 22세였다.

### 복 음 록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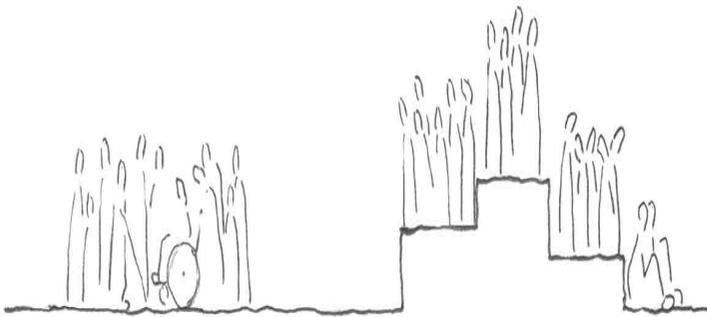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서열의 세상

성별, 지역, 학벌  
종교, 재산, 지위....

참 세상에  
서열은 많기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잘도 알고 끼리끼리  
모여서 짝을 이루었을까.

그냥 생긴 그대로  
그냥 날것 그대로  
만나자면  
내가 이상한  
거겠지.



상화이야기

세례자 요한 제단화



한스 멤링  
1479년경 제작  
오크파넬 위 유희  
중앙제단화 173.6x173.7cm  
양옆 제단화 각 176x78.9cm  
브뤼헤 상요한병원,  
벨기에

그림을 펼쳤을 때의 모습

▼왼쪽 패널



중앙 패널의 왼쪽 뒤편 작게 그려진 배경 속에서 병사들이 세례자 요한을 끌고 왼쪽으로 향했는데, 이 왼쪽 패널에 바로 세례자 요한의 참수 장면이 그려져 있다. 배경 왼쪽 상단에 헤로데의 연회 장면이 그려져 있고, 그림 앞쪽에는 살로메가 내민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내려놓고 있는 병사가 보이며, 두 손을 모은 채 참수된 세례자 요한의 목에서는 아직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먼 후경의 배경에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그리고 그 위에 열린 하늘에서 하느님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그림들은 뒷배경의 장면을 통해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5주일: 교포단 윤희석 신부

◆ 교구장 동정

- 문무대(학군교) 성당 사목방문

때: 7월 14일(주일)

- 가톨릭의료협회 한일운영위원회

때·곳: 7월 19일(금)~20일(토), 은평성모병원

- 2019년 제17회 교구청소년대회 발대미사

때·곳: 7월 20일(토) 15:30,

군중교구청 1층 소성당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